한라시론

'사람 존중' 자녀 인성 교육에 대해

김 용 성
시인·번역가·교사

자녀가 다니는 학급에 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특수한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아이는 그 아이를 존중할까? 차별할까? 아니면 그때 그때 다를까? '차별'에 대한 부정적 어감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현실은 사람을 차별하는 아이들이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부모가 모르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은 "네"라고 답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례가 꽤 많다. 복도에 줄을 설 때 따돌림을 당하는 어떤 아이 뒤엔 자녀가 안 서려고 한다면, 또는 교내 식당에서 그 애랑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면 인상 쓰거나 불편한 말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애를 다른 애와 다르게 대한다면 그건 '사람 존중'이 아니라 '사람 차별'이 맞다.

머리로는 무엇이 '바른지' 알지만, 실제 말과 행동은 '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패턴이 되는 경우다. 확고한 기준 없이 기분대로, 하던 대로 반복된다면 '인격'으로 굳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격적 '이중성'은 학력과 상관없이 작동한다. 많이 배운 사람도 사람에 따라 약점을 이용하는 등 교묘하게 '달리 대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자녀의 인성과 그 기준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반듯한 기준'을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급은 하나의 작은 사회다. 여기에는 갈등과 대립, 협력과 나눔 등 어른 사회 못지않은 '현실'이 있다. '사람 존중' 실천이 쉽진 않다. 차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상대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변명 내지 합리화하기도 한다.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때그때 다르다면 문제가 크다. 사람에 따라 자기감정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고 '사람 존중'이 뭔지 모르는, 아니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이를 사람의 본성이라 할지 모른다. 반 친구를 흉보고 비하하는 아이가 자정능력을 잃고 굳어진 '인식 틀'로 성인이 돼서도 패턴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데도 본성 탓만 할까? 누구는 비도덕적인 언행이 만연하는 분위기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환경 탓 남 탓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사람 존중'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철칙이다. 어설픈 합리화는 인격적 '이중성'을 방치할 뿐이다. '바른 인성'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되는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부모가 이를 지원하는 건 마땅하지 않을까?

사설

중소기업 고용시장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올 하반기에도 제주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내수 침체 장기화는 물론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등 경영환경 악화가 인력 충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뚜렷한 활로도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가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인력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는 '채용계획 없음'이라고, 36%는 '채용 계획 미정 또는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개선의 여지도 없다. 종사자 규모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50인 이상 기업은 54.5%였지만 나머지 기업은 14~18% 선에 머물렀다. 기존 인력으로 버틴다고 보면 된다. 경기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건비 부담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비를 넘겨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고용지원금 등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취업 연계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등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바람이다.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실은 막막하다. 단기간 내에 나올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다. 특단의 처방이 있지 않는 한 지역경기가 더 위축되는 건 시간문제다.

트라우마센터 국비 전액 지원 관철시켜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8일 법안1소위를 열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했다. 대신 국가의 예산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과정에서 비록 지자체를 제외하자는 당초 개정안 내용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명시함으로써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치유센터는 4년간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거쳐 국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7월 공식 개관했다. 문제는 국립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도 운영비 17억600만원 중 절반인 8억5300만원을 제주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위로와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유활동 만족도가 높으면서 시설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설 운영비 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 국회 절차상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의, 본회의서 통과돼야 한다. 제주도 당국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열린마당

모두를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심 소 연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도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신 어르신께는 1인 1회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는 "면허를 반납해도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며, 원동기면허(오토바이 면허)도 예외가 아니다. 1종·2종·원동기 면허를 모두 보유한 이가 반납을 결정했다면, 일부 반납은 불가능하며 일괄 취소만 가능하다.

면허증을 반납할시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및 예금통장사본을 챙겨야 한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자율적인 결정이며, 어르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함께 지키는 첫걸음이다. 다소 복잡하고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 고령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야외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야외 작업자에 생수 전달

○…폭염 속에도 생계를 잇기 위해 야외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 등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 노동권익센터가 9일 제주도개발공사와 개발공사 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와 함께 야외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협약식 이후엔 제주항운노동조합과 KT제주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야외 노동자들을 찾아가 제주삼다수 1만1500개를 전달하고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10일엔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방문할 예정.

김경보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으로 지쳐 있는 야외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건강할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고교학점제 융합과학탐구 운영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2025년도 1학기 고교-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인 '융합과학탐구'를 운영.

미래 과학자로서의 기초 융합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4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운영된 이번 강좌에는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10명이 참여해 과학자 혹은 공학자로서 갖춰야 할 연구능력에 대해 학습.

김인중 지식재산교육센터장은 "융합과학탐구를 수강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창의적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화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등과 연계해 과학과 지식재산을 융합한 교육 및 진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김채현기자

유상감자공고

당 회사는 2025년 7월 8일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결의하였는 바,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공고합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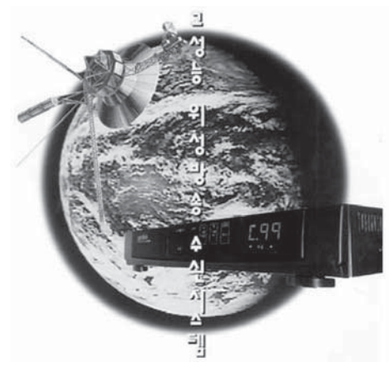
• 총 주식수: 136,800주 • 감자비율: 10:1
• 총 자본금: 684,000,000원
• 유상감자방식: 임의유상소각 1주 당 5,000원
• 감자 후 총 주식 수: 13,680주
• 감자 후 총 자본금: 금 68,400,000원
• 감자사유: 각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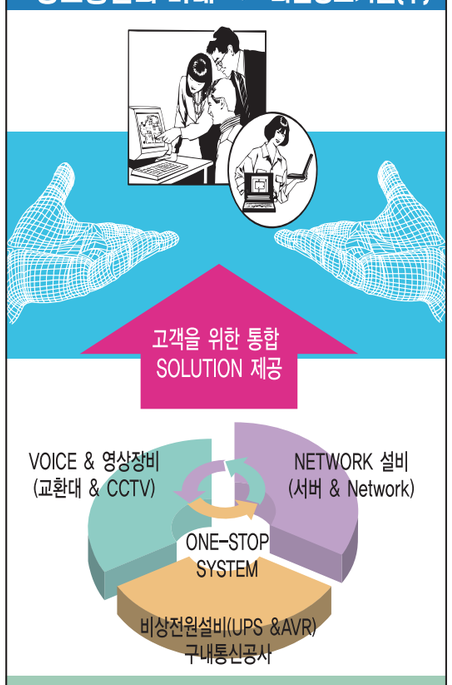
2025. 7. 10.

주식회사 에스피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90 / 사내이사 장 철 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뻥,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